

KISTEP 통계 브리프 2005-6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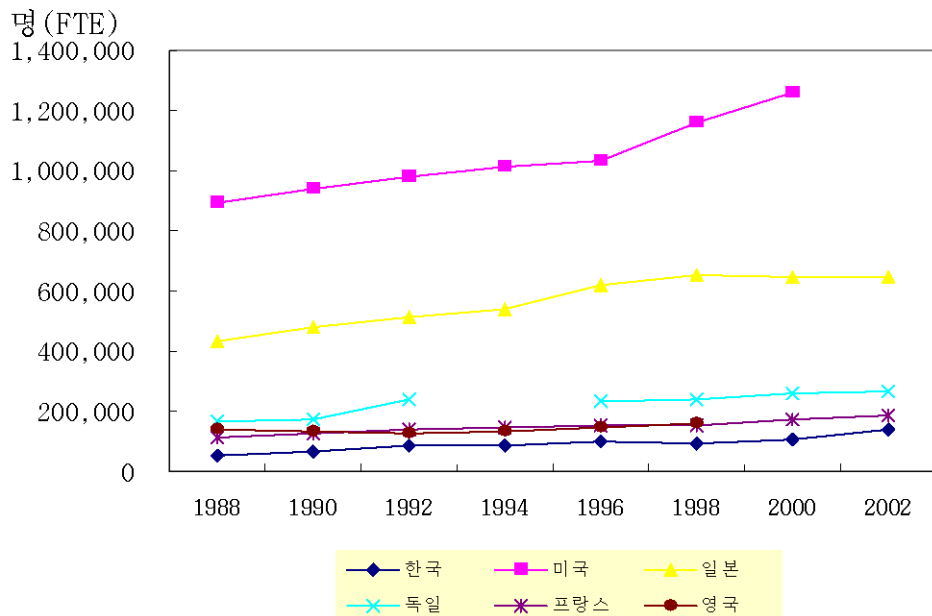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연구인력 현황 및 구조 분석



□ 국가별 연구원 규모의 성장 추이

- 지난 15년간('88-'02) 우리나라의 연구원 수는 연평균 7.4% 성장
 - 미국,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규모는 작으나 성장속도는 2-3배 높음
 -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, 일본이 29%, 독일 3.4% 수준임
 - 이러한 성장 속도가 지속된다면 수년 안에 영국,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 수준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

<그림 1> 주요국의 연구원 수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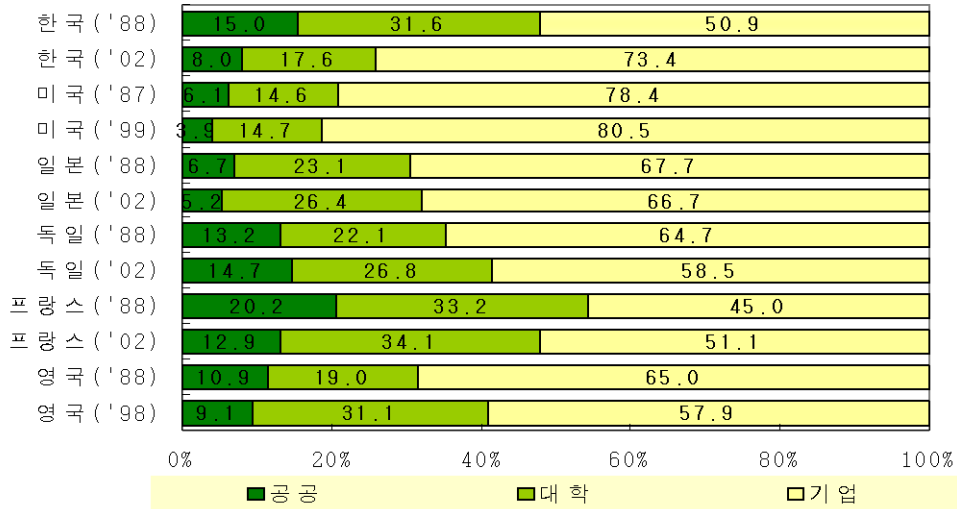


자료원) OECD, Main S&T Indicators, 2005/2

□ 연구주체별 연구원 분포 변화

- 우리나라 연구원 규모의 성장은 기업부문 연구 인력의 급속한 성장이 주도
 - 연구주체별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 ('88-'02년)
 - : 기업 10.4%, 대학 2.9%, 공공연구기관 : 2.7%
- 그 결과, 연구 주체별 연구원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게 변화
 - 기업부문 연구원 수의 비중은 '88년 50.9%에서 '02년 73.4%로 확대

<그림 2> 주요국의 주체별 연구원 구조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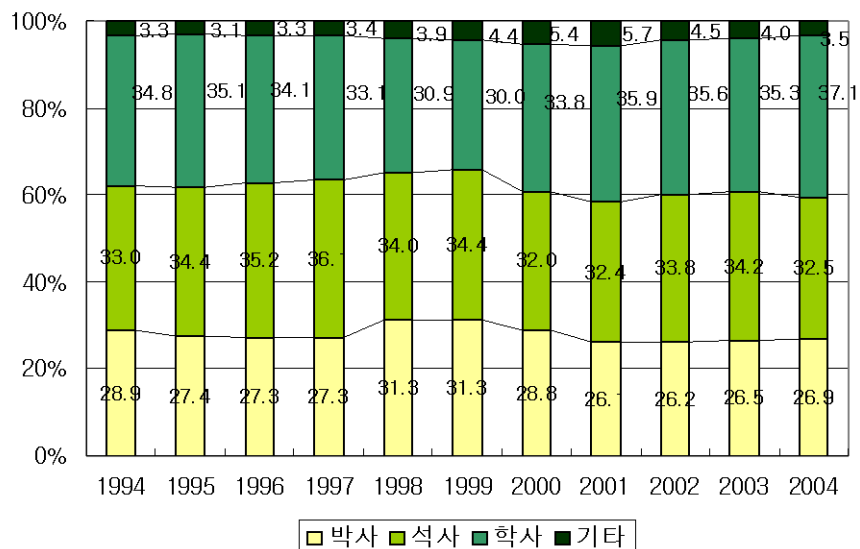


자료원) OECD, Main S&T Indicators, 2005/2

□ 학위별 연구원 분포 변화

- 박사인력의 비중은 2000년 이후부터 감소된 반면, 학사인력의 비중은 증가
- '01년 이후 박사인력 비중은 26%, 학사인력 비중은 37%까지 증가
- 연구 전문성을 보유한 박사 및 석사인력의 비중 합계가 '01년 이후 60% 이하로 감소

<그림 3> 학위별 연구원 수 비중 변화



자료원) 과학기술부 · kistep,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

□ 시사점

- 우리나라 연구원 규모는 지난 15년간 선진국을 상회하는 속도로 성장하여 선진국과의 규모 차이가 축소됨
 - '88년 미국 연구원 규모의 5.8% 수준에서 '02년 11.3% 수준으로 성장
- 이 과정에서 기업부문 연구원 규모의 급속한 증가가 주도적 역할
 - 기업부문 인력은 연평균 10.4% 증가하여 '02년에는 국가 전체의 73.4% 차지
 -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보다 기업부문 비중이 높음
- 반면, 연구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박사 연구원의 비중은 감소 추세
 - 박사인력 비중은 '99년 31.3%까지 성장했으나 '01년 이후 26% 수준
- 향후 연구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연구 전문성을 함양한 고급 인력의 양성을 통해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함

* 다음호는 “우리나라 지식자원 현황 분석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

* 자료관련 문의: 기술혁신지포팀 (02-589-2829)